VD GoGo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세계일류로 가는 길, 디자인제일주의

디자인은 힘이 세다. 갈수록 업체와 국가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제품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요소로 부각된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 · 벤처기업 CEO중 대다수에게 디자인은 '먼 존재'이거나 '나중에 해도 될 일'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로 생각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365일 디자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찾았다.

●●● '디자인코리아'의 시작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원장 이일규, www.kidp.or.kr 이하 진흥원)은 우리나라를 디자인 선진국으로 이끌고 세계 디자인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제일의 디자인 토탈서비스 기관(Global Design Total Service Provider)'을 지향한다.

1970년에 설립된 진흥원은 1997년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정되고 2001년 코리아디자인센터 준공 및 세계 산업 디자인 총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면서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디자인지기'

진흥원은 올 9월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파저우 전시장에서 '디자인코리아 2008-광저우'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국 최대의 중소기업박람회인 「중국 국제중소기업박람회」와 연계되어 더욱 많은 관람인원을 예상하며, 한국 최고의 디자인 전문회사 약 40여 개가 참여하여 중국시장진출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 중 디자인비즈워크숍을 통해 양국의 디자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B2B구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진흥원은 2008 코리아디자인포럼(Korea Design Forum

2008)에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톰 피터스(Tom Peters)를 초청, '디자인으로 미래를 경영하라'는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럼개최는 디자인경영 및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성공사례를 통해 정부(지자체), 기업 등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 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 신 성장동력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디자이너, 중소기업 대표, 학생 등 2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디자인사랑 걷기대회 또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 붐 조성을 목적으로 열려 큰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디자인 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원하는 청년 디자이너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창업에 따른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디자인 CEO육성 프로그램'은 7월 1차 교육에 이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공원, 발전소,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분야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맞춤 지원의 결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디자인기술개발사업에 923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58.1%, 수출액이 89.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디자인투자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자인투자는 업체당 평균 3천 4백만 원으로, 디자인투자액 대비 매출은 약 26배, 수출은 16.3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측면에서도 디자인개선으로 인한 매출확대 등의 영향으로 디자인개발 직전 업체당 평균 44.7명의 고용이 디자인개발 이후 52.9명으로 증가하여 업체당 8.2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

디자인 기술 개발 사업의 효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증감	증감율
매출액	1,548.8	2,448.7	899.9	58.1%
수출액	762.6	1,444.2	681.6	89.4%
고 용	44.7명	52.9명	8.2명	18.3%